

流會遺憾

1971年度 第一回 서울特別市支部 臨時總會

宋 寬 植

(서울特別市 支部長)

이번 臨時總會 流會의 原因을 살피기 前에 우선 서울市支部의 運營을 担当한 者로서 會員 여러분(특히 이날 出席한 會員)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유감스럽게도 成員未達로 流會가 된 것은 會員多數가 自己의 權利와 그 行事를 소홀히 한 탓이라고 하겠으나, 그래도 執行部의 責任者로서는 그 義務를 다 못해서 된 것만 같습니다.

대체로 流會된 原因을 살펴보면, 이번 總會는 우선 그 時期가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一年中 가장 무더운 炎天의 三伏中이어서, 대체로 業務量이 적고, 부진한 時期에다 또한 “바캉스”가 한창인 時期로서, 出他한 會員이 많았고, 다음은 總會의 案件으로 보아서 會員多數가 그다지 參席을 重要視 하지 않았다는 點은 追更이 없었다는 點等を 들 수 있다고 봅니다. 勿論 예산상 부분적인 고갈을 免치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不足한 豫算을 세금조차 못내고 허덕이는 會員 여러분께, 또 負擔을 지울수도 없는 노릇이고보면, 다 쓰고난 예산을 잘 썼느냐? 못썼느냐 하는 일을 가지고, 이 더운날 參席치 않으면 어쩌하리……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任員 補選에 있어서, 이 또한 三個月 밖에 남지 않는 임기를 누구를 보선할 것이며, 누구가 補選이 된다 하더라도 불과 3個月 하고서 또 改選할 것을…… 하는 心情이 앞서게 된 것이 아닌가도 짐작케 합니다.

그러나 본인으로서 한가지 유감스러웠던 일은 共濟組合 試案이 또 허탕치고 만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市支部의 會員은 增加一路로서 현재 그 人員이 5百名을 초과한데다가 業務量 마저도 감소되어 가는 형편인데다가 (주원인은 건축억제) “덤핑”은 더욱 늘어나고, 會員間의 福利向上을 위해서는 어떠한 方法이든 우선 뭉치어서 組合을 하든, 合同을 하든 해야만 될 것인데, 못하게 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요번 시안의 內容을 살펴보면, 多數 會員이 反對할 理由가 하나도 없이, 서울會員은 地方會員과는 事情이 다른 點이 많아서 그 모든 問題點을 除

外하고서 이루어진 共濟會 推進委員會 여러분께서, 數次 會議를 거듭하여, 그 手筈을 아끼지 않았던 시안인데, 이것이 이번에도 또 通過의 빛을 못보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천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總會가 建設部 指示에 따라 本部는 10월에, 本支部는 11月中에 行하여져야 하는고로, 本支部 總會는 이제 8月로 다가오고, 9·10月, 만 2개월 남은 셈이 됩니다. 그래도 다시 總會召集을 해서 決算承認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겠으나 總會豫算이 다 支出된 지금, 다시 總會豫算을 負擔시키는 것 보다는 두달 후 定期總會에서 決算承認을 먼저 받고나서 내년도 豫算承認을 받을까 하는 바입니다.

서울市支部總會는 流會되는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 理由는 充分히 있었다고는 하나 앞으로 서울市支部의 總會는 그 方法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成員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會員이 많아서 그 座席이 문제가 됩니다. 數學的인 計算은 고사하고 本部 總會는 代議員의 座席이 의자 하나에 두 사람씩이면 족하지만 서울市支部 總會에서는 세 사람씩 앉아도 의자가 不足해서 立席會員이 많습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내년쯤은 過半數 會員이 至今의 建設會館에는 다 參席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될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나라만 보더라도 그 會員數가 많아서 위임장 제도가 성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勿論 결의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날의 多數意見에 쫓아간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市支部에서는 위임장 제도를 채택해 줄 것을 本協會에 申請한 바 있습니다. 이는 물론 總會에서 결의되어야 할 것이지만 地方 代議員 여러분께서는 기필코 저의 서울市支部의 所望이 이루어 지도록 協助해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오며 끝으로 會員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은 나 한 사람이 안나가도 總會가 流會될 수 있다는 것과 나 자신을 위해서 總會에 임한다는 것과, 내가 안나가는 것은 곧 나뿐만이 아니라, 他會員에게도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옵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971년 8월 19일